

토종오리의 중요성과 산업화 과제(하)

※ 지난호에 이어진 계속



IIII 서옥석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가금과장

◎ 한국 토종오리를 살리기 위한 과제

198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이 진행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자 우리의 기호에 알맞은 토종닭의 추억을 떠올리는 소비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속수무책, 사라진 종자를 구할 길이 없으니 유사품과 둔갑된 외래종이 그 자리를 파고들게 되고, 소비자들은 토종닭 한 마리를 먹을 때마다 이게 진짜여? 가짜여? 하는 심정을 토로하게 된다.

이때쯤 국가연구기관과 민간에서 한국 토종닭에 대한 눈길을 주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축산시험장 가금과 팀을 주축으로 한 재래닭 특성 연구논문 등이 발표되었으나 그 내용은 학술적인 내용에 치중되어 산업에 직접 접목시키기에는 한계(限界)가 있었다.

이즈음 연구진을 결집하고 연구비 확보를 통해 한국토종닭의 복원과 개량의 기반을 확립한 학자가 서울대학교 오봉국박사이다. 당시 그분이 설정한 토종닭 관련 연구 로드맵은 첫째 토종닭 종자를 복원하고, 둘째 복원종자를 유엔환경보존기구(UNEP)에서 제정한 생물

다양성협약에 따른 유전자원으로 등록하며, 셋째 복원종자를 모본으로 교배종을 만들어 실용계를 작출함으로써 경제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매우 방대한 것이었다. 토종닭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90년 동안을 관심없이 버려두었던 존재이다. “이 닭이 토종이다” 누군가 주장한들 혈통과 내력의 기록이 없다. 수십년간 외래종과 광범위하게 교잡이 이루어진 종자가 토종닭이란 이름으로 지방에 널리 보급되어 있어서 순수종자를 찾는다는 것이 형편없이 엉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오봉국 박사의 진두 지휘하에 연구진은 1994년부터 1997년도까지 4년간의 고군 분투를 시작한다. 이 기간중 연구팀이 수행한 과제는 총 11개였고 연구비는 9억 2천만원을 투입했다. 참여한 인원은 대학교수가 16명, 연구관 8명이었으며 4년간의 연구기간 중 관여한 연 인원은 84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997년도에 4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사라졌던 한국토종닭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경향각지를 헤메며 수집한 토종닭 종자가 3계통 1,769수, 외국에서 도입한 순계로서 로드종 451수, 나고야종 361수, 코니쉬종 2계통 696수 합계 3,277수가 최종 연구산물로 남겨졌다.

이들을 기반으로 실용계 작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연구진은 4년간의 결실인 시험계 전부를 농촌진흥청에 이관하여 후속연구를 지속토록 하였다.

이렇게 남겨진 종자가 제 대접을 받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또다시 소모되었다. 인계받은 순계를 모본으로 실용 재래닭이란 이름의 닭을 시범사업으로 보급하였으나 보조사업이 끝나면서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였고 종자의 쓰임새가 없어지게 되었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품종보존사업을 중단하고 불필요한 종자를 폐기처분하라는 내부의 요구도 높아졌다. 국내 연구 풍토상 연구원들이 어쩔 수 없이 단기적 성과에 눈길을 돌려야 하는 현실도 문제였다. 어렵게

복원된 토종닭 종자는 분양(分讓)을 요청하는 전화 민원 해결용 정도로 10여년 동안을 준 방치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몇 계통의 종자는 실제로 폐기되는 수난을 겪었다. 우여곡절을 겪은 토종닭 종자가 쓰임새를 찾은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종자의 상표출원, 시식행사와 홍보, 맛 차별성을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알리는 활동 등을 통해서이다.

□ 토종오리 산업화 모델

이상이 토종닭이 겪었던 과정이다. 그러나 오리는 다행스럽게도 순종집단이 이미 수집되어 있다. 거기서부터 산업화를 향한 행진을 시작하면 될 것이고, 토종닭을 복원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시행착오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진에게 노하우로 남아있다.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빠른 성취를 향해 달려갈 계획이다. 그 결과로 얻어진 모습은 아래 도표와 같다.

분야(分野)	현재(現在)	전망(展望)
● 정책지원(政策支援)		
● 토종오리업 등록(개소)	0	30
● 토종오리 사육비율(%)	15	50
● 원종오리(GPS) 사육농장(개소)	0	2
● 오리검정소 설치(개소)	0	1
● 토종오리사 표준설계도 제작(종)	0	1
● 기술수준(技術水準)		
● 종란 생산수(개/종오리 1수)	200	250
● 병아리 생산수(수/종오리 1수)	130	200
● 육용오리 체중(kg/6주)	2.1	2.8
● 사료요구율(6주)	2.5	2.2
● 기술개발·보급(技術開發·補給)		
● 한국형 표준 사양기술(종)	0	2
● 한국형 방역프로그램(종)	0	1
● 저비용 육용오리사 모델(종)	0	1
● 수출오리 사양기술(종)	0	1

